

=====

2015년 08월 09일 주일

=====

다른 길이 있으니 목매지 말아라

[시편 23편 1-2절]

1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של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2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니,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 7월 26일 주일, 8월 2일
주일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생각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전해 준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번 주 수요일에
전해 주겠습니다. 오늘은 이보다
더 먼저 급히 전할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

◎ 지금까지 〈생각〉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생각〉에 대한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생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었고, 7월 26일 주일과
8월 2일 주일에도 또 〈생각〉에 대한
말씀을 해 주었고, 이번 주 수요일에도
〈생각〉에 대한 말씀을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한 번 더
〈생각〉에 대한 말씀을 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간 〈생각〉에 대한 말씀을
총집합해서 책으로도 만들어서 모두
보게 해 주기 바랍니다.

◎ 〈생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용 - 생방송 때 설명)

◎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해 줄지 궁금하지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른 길이 있으니, 목매지 말아라.’
입니다.

◎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요?
〈주제〉 속에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민족이나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계획한 일〉이 자기 실수로 안 됐다고
낙심하고, 마음 애태우고,
자포자기하며 그것에 목매지 말아라.

〈다른 길〉이 있다.
- 이러한 뜻을 담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언제든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부르면서
〈다른 길〉은 무엇이냐고 생각나게
해 달라고 간구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다른 생각을 하면, 문제의 답을 못
듣고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한 가지를
가지고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면서
생활 속에 수백 가지를 계시해 주고
말씀해 주십니다.

◎ 이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7월 말경, 올해 여름 수련회를 며칠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수련회
말씀〉은 보낸 상태였지만, 수련회를
위해 ‘다른 것들’도 준비해서 보내야
했습니다.

8월 1일 토요일에 첫 수련회가
시작되니, 늦어도 7월 30일
목요일에는 준비한 것들을 다
우편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잠언 150여 개를 써 놓고, 수련회 때
준비할 것의 핵심을 글로 써서 다른
편지들과 함께 큰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부치기 전에 빠진
것이 없는지 방바닥을 자세히
살폈으나 빠진 것 없이 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감 3분 전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전날부터 이것
때문에 너무 신경을 썼는데, 불가능한
것들을 다해서 보내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서 행여나 또 빠뜨린
것이 없는지 다시 봤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확인하고 보냈는데도
중요한 것 한 장을 빠뜨리고 보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까지 편지를 못 보내면
수련회 때 해 줄 것을 해 주지 못하여
섭리사 전체에게 영혼의 양식을 전해
주지 못하여 1년에 딱 한 번뿐인
수련회의 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혹여 한 장이라도 빠졌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 확인하고는 성령님께 말했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최고로 신경을 쓰고 정신일도해서
할 일을 다 하고 보낼 것들을
속 시원하게 보내고 나니, 그동안
애쓰면서 힘들었던 몸이 다 풀립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 타는 시간이 끝났으니
물이나 마실까?’ 하고, 방바닥을
봤는데, 글씨 글을 써 놓고 늘어놓은
종이들 중에서 딱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 장’이 수련회 때 해야
될 것들을 기록한 것으로 보낸 편지들
중에서 최고 핵심이 되는 중요한 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한 장이 빠진 것입니다.

‘이런, 어찌지? 큰일 났다!
빨리 이 한 장을 따로 다시
보내야겠다.’ 하고, 3000원짜리
우표를 붙여서 다시 보내려고 하니,
시간이 다 돼서 책임자가 떠난
상태였습니다.

왜 이 중요한 한 장이 빠지게 됐나?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100% 내
잘못이었습니다.

항상 편지를 쓰고 나면, 빠뜨리지 않고
보내도록 즉시 봉투에 넣으라고
성령님도 성자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넣었기 때문입니다.

하필이면 수련회 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것을 기록한 아주 중요한 한 장을 빠뜨리다니, 정말 난감했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내 머리를 나무랐지만 소용이 없었고, 환경을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행한 일이니, 내 자신이 한심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고 빠진 것이 없는지 네다섯 번이나 확인했는데 왜 안 보였지?’ 하며 내 자신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길이 있는데 목매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길>로는 이 편지 한 장을 보낼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편지는 오늘 아까 그때까지 보냈어야 딱 수련회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편지 보내는 시간이 마감됐으니, <다른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이때 감동이 되기를

“내일 조은이 면회 오지 않느냐. 내일 빠진 것을 직접 말로 해 주면 된다. 그러면 편지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착하지만, 조은이는 내일 오전 9시에 면회를 오니 한 시간 더 빨리 빠진 것들을 전해 줄 수 있다.” 하셨습니다.

달력을 보니, 내일이 조은이가 면회 오는 날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해 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로 못 보낸 한 장의 내용을 내일 면회 때 전해 주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마음이 일순간 편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 기뻐했습니다.

조은이가 하루 빨리 왔어도 안 되고, 하루 늦게 와도 안 되는데, 딱 내일 온다고 하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조은이가 정말 오려나? 만일 못 오면 어떻게 하지? 모레 오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조은이가 보낸 편지를 보니, 내일 ‘7월 30일 목요일’에 꼭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내일 목요일에 꼭 오게 감동을 달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조은이가 ‘금요일’에 면회를 왔는데, 지난주부터 다시 하루 당겨서 ‘목요일’에 면회를 왔습니다.

<3.16>을 제대로 맞지 못하여 충격적인 일을 겪고, 이후에 그 같은 날이 또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아시고, ‘금요일’에 면회를 오면 늦어서 안 되니 조은이에게 감동을 주시어 ‘목요일’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3.16>을 제대로 맞지 못하여 최고로 애간장을 태운 자가 선생과 조은이었습니다. <책임자>만 더욱 애간장이 타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절벽이라도 뛰어 내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구원역사 6000년 만에 최고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날인데, 그 날이 <영 휴거 되는 날>인지 제대로 몰라서 그렇게도 후회가 되고 억울했습니다. 이번에도 <3.16> 때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3.16> 때 확실히 이야기하지 못하여 제대로 못 맞았지만, 그 후에 다시 이야기해 주어 <부활 주일>에 3.16의 한을 풀고 문제를 해결해 버렸지요?

그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조은이’를 쓰고 해결했는데, 이번에도 또 ‘조은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행사 때 선생이 100% 하지 못하여 실수했지만, 이로 인해 ‘교훈’을 얻었습니다. 선생이 쉬지도 못하고 죽도록 행했어도 인간인지라 ‘내 일’에 실수를 하여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살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일’에 실수하여 자기를 원망하고 한탄하고 포기하며 그 일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가 예비하신 다른 길>이 있습니다.

마치 첫 번째 <3.16>에 못 한 것을 두 번째 <부활 주일>에 하여 문제를 해결하듯이, <다른 길>이 있으니 목매지 말고 <그 길>로 하라고 섭리사 전체에 특별히 계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선생이 충격적으로 빠져리게 깨닫고 ‘섭리인 모두에게 꼭 이 말씀을 해 줘야겠다.’ 깨닫고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으면, 자신의 무지로 100% 못 해서 실수한 것을 <다른 길>로 해결하지 못하고 목을 매고 애간장을 태우다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손해가 되고, 한이 되고, 괴로워서 기쁨이 없습니다.

자기가 실수하고 못 한 것을 생각하며 한탄만 하고 낙심만 하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가 예비하신 다른 길, 달리 행할 길>이 있습니다.

고로 꼭 할 일을 못 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회를 놓쳤다고 그 일에 목매지 말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 빨리 <다른 길>을 찾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할 일>을 못 하고 기회를 놓치면 당황하고, 포기하고, 정신과 생각이 혼돈되어 주저앉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고로 옆에 있는 사람이 쫓아가서 다독이며 생명을 구해 줘야 됩니다.

그때 기도하며 <다른 길>을 찾으면 <다른 길>이 있으니,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찾고 기쁨으로 잔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날 목요일에 조은이가 면회를 와서 편지를 써 놓고서 못 보냈던 핵심 한 장의 내용을 심정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전해 주게 하여 수련회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잠언에 대한 내용>이 중요했는데, 다 전달해 주어 차질 없이 진행했습니다.

모두 자기가 실수하여 할 일을 못 하고 기회를 놓쳤어도 <달리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 길을 찾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때도 선생이 <잠언>을 보내어 잠언을 읽을 담당자를 세워서 읽어 주게 하기도 했고, 산행 코스에 잠언을 붙여 놓고 스스로 읽어 보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150개의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평생 도움이 되고, <말씀>이 곧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되어 그때마다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대학부 청년부 수련회에 다녀온 사람들은 이 잠언들을 읽고 들었지요?

수련회 잠언들 중에서 특히 생각나는 잠언 있어요? 각각 생각나는 잠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연이 있는 곳'에 역사를 펴신다. 이 잠언도 기억나요?

어떤 것을 근본으로 두고 성자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지 이 잠언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수천 명 중의 3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잠언의 근본 뜻'을 깨닫고, 같이 기뻐하며 잔치합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

<월명동>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얽힌 사연'입니다. 사연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월명동>에 역사를 펴셨습니다.

<인대산>에도 '사연'이 있기에 올해 수련회 때는 그쪽을 산행하게 하면서 '계곡 피서 역사'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릿골>에도 '사연'이 있기에 그쪽을 꾸며 놓고 가보게 했습니다.

<치타솔>이 있는 곳도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잠언'도 붙여 뵈었습니다.

올해 수련회 때는 삼위일체와 주의 뜻, 시대 말씀의 뜻을 확실히 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두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처럼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확신에 서는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선생과의 사연이 있는 곳을 거닐며 깨닫고, 여러분도 하늘과 사연을 만들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사연>은 '사랑'입니다. <끝>

오늘은 자기 실수로 자기 할 일을 못하고 기회를 놓쳐서 애를 태우며 후회하여 목만 매고 있는 자들에게 <해결 방법>을 주었습니다.

곧 다시 <다른 길>을 주며 기회를 주니 정말 잘 행하여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모시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잔치해야 됩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했습니다.

<구약>에서 못 한 것은 때가 되어 <신약> 때 '후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며 신약역사 2000년 동안 잔치했습니다.

또 <신약>에서 못 한 것은 때가 되어 <성약> 때 '제3의 아담, 보낸 자'를 통해 하게 하여 1000년 동안 <휴거 혼인 잔치>를 하게 합니다.

<영>은 성자와 함께 '천국 황금성'에서 혼인 잔치를 하고, <육>은 분체와 함께 '땅'에서 혼인 잔치를 합니다. <끝>

저 기성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 우리 섭리역사는 <하나님의 시대 역사>를 맞고 지금 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역사입니다. <재림과 휴거의 역사>입니다.

저들은 그 희망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신약역사 2000년 동안 잔치하며 살았습니다.

섭리역사는 그 희망을 이룬 역사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며 잔치하는 역사가 아닌, 맞고 뜻을 이루며 잔치하는 역사입니다.

이 가치를 정말 깨닫고 전심으로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귀한 것을 받고도 <가치>를 몰라서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따라오면서도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생각>이 죽어서 <생각>을 다른 데 뺏겼습니다.

고로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섭리의 삶'을 내던지고 그 좋은 '천국 황금성 길'을 포기하고 제 갈 길을 가기도 합니다. <보화가 묻힌 밭의 가치>를 모르고 내던지고 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보화가 묻힌 밭>이 버림받을 것 같지만, 결국 <본인>이 버림을 받고, 그 <밭>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여 그 사람이 자기 대신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게 됩니다.

<사망길>은 뻥합니다.

<사망길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길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그 길로 가면 너무도 허무하고 처참합니다.

그 길은 <자기 생각>과 달라서 즉시 후회하고, 거기서 이를 가는 고통을 겪으며 별의별 생각을 다하게 됩니다.

<새 역사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별 볼일 없는 가련한 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섭리사에 있을 때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주와 함께 그렇게 아끼고 살피며 챙겨 주지, 세상은 정말 삭막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변화무쌍하여 처음에는 그 길로 가면 편할 것 같아도 곧 마음이 변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새 역사 하나님의 품〉을 떠나니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세계〉가
자기와 끊어지고,
〈영원한 고통과 사망의 세계〉만
자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고로 영도 혼도 아무 희망과 낙이
없고, 육신이 별짓을 다해도
영과 혼은 다 포기해 버립니다.

육체영이만 마음과 함께 살아가지,
영과 혼은 육과 같이 즐거워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황금성 천국 길〉을 가는
자들은 ‘가치’를 알고, 삼위의 정신을
받아 〈뜻과 목적〉을 두고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함께,
주와 함께 끝까지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 올해 〈여름 수련회〉에 관한 이야기
하나를 또 해 주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100번씩은 감사할 것입니다.

올해 6월에서 7월 초까지 한국은
‘메르스’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모임’이 다
취소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발길이 끊어져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일어났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였습니다.

이로 인해 섭리사도
‘대모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완전히 안전하다.
메르스가 완전히 소강됐다.’ 하기
전에는 올해 여름 수련회도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적 손해도
커졌지만, 우리 섭리사가 최고
큰 손해였습니다.

섭리사 수련회는 기성의 수련회와는
달라서 수련회 때가 영적 수련을
하면서 신앙을 무장하여 영적 기반을
확실히 잡는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대 역사를 펴는 데 있어서
〈섭리역사〉는 ‘핵의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고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섭리사만 최고 손해라는 것을
깨닫고, 하루 속히 ‘메르스’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극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뉴스를 보니 ‘대전 지역’도
메르스가 심했는데,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름 수련회 때〉 이쪽에서
모여야 되는데, 이쪽이라도 메르스가
사라지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국과 세계에서
모여드니, 한국 전체에 메르스가
사라져야 문제가 해결되지, 우리가
모이는 대전 지역에만 메르스가
사라지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장
말씀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합당하니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메르스’가 점점
사라지게 하셨고, 수련회 전에
‘메르스’가 완전히 사라져 간신히 때에
맞춰서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함으로 전도하고, 신앙을
무장하고, 하늘과의 사연을 만들고,
여름 여행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성령님,
성자 앞에 늘 감사 감격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짜증내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대화입니다.

〈말씀〉은 ‘길’이라고 했지요?
말씀만 듣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며
휴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길을 가면서, ‘항상
대화’입니다.

이것을 알고 감사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여름 수련회〉를 최고의
수련회로 삼고 하늘과의 깊은 사연을
만들고 신앙도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 또 〈여름 수련회〉에 관한 이야기
하나를 더 해 주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면서 올해
수련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감사
감격할 것입니다.

잘 들어봐요.

올해는 한국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 영향으로 월명동
소나무들과 각종 나무들도
걱정이었습니다. 나무가 한창 커야 될
때인데 비가 안 오니, 일일이 물을
줘야만 했습니다. 이때 못 크면, 올해
1cm씩 더 못 큼니다. 가뭄이 심하니,
꽃나무들도 다 말라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월명동 호수의 물을 빼지 말고,
그 물을 월명동 전체에 줘라.
가뭄이 극심하다. 메르스, 가뭄 모두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다 하나님과
연관된 일이다. 우리도 조심하자.
월명동에만 비가 오게 하고,
월명동에만 메르스가 없게 하겠냐.
다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가
기도하며 조심해야 된다.

호수의 물을 다 빼고 깨끗이 청소해야
호수에 다시 물을 받아서 수련회 때
〈월명 파크 수영장〉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호수의 물을 빼지 말고 그
물을 나무들에게 주자.” 했습니다.

그 대신 〈인대산 계곡〉을
준비했습니다. 그곳을 준비하느라
두 달 정도 풀을 베고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장마가 와서
비가 많이 올 것만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단에서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월명 호수〉를 사용하려면,
지금쯤은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을 빼고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물을
채우는 데 약 한 달이 걸리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월명 호수〉를 청소하는 데
2000~3000만 원의 경비가 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최종으로 결정하여 답을 주기를

“지금 〈인대산 계곡〉을 준비 중이니, 올해는 〈월명 호수〉를 사용하지 말고 〈인대산 계곡〉을 쓰게 하자. 그리고 〈월명 호수〉를 청소할 돈으로 과일 몇 트럭을 사다가 나눠 주자.” 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8월 1일 대학부 청년부 첫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표도 많이 붙여서 꼭 제때, 교단에 편지가 도착하도록 하여 보냈습니다.

그런데 4일 후에, 내가 교단으로 보낸 그 편지가 우체국까지 갔다가 다시 나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쓴 우표 두 장이 붙어 있어서 다시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선생이 잘못 인식하고, 이미 쓴 우표 두 장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도 그 옆에 새 우표를 더 많이 붙였기에 우표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다시 되돌려 보낸 것입니다.

‘이상하다.’ 하고, 내가 보낸 편지를 다시 뜯어 봤습니다. 그 봉투 안에 든 편지의 내용은 올해는 〈월명 호수〉에 물을 안 받을 것이니 호수의 물을 빼지 말라는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는 꼭 가야했는데, 못 가고 내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편지는 가면 안 된다. 올해는 너무 더워서 꼭 〈월명 호수〉를 ‘수영장’으로 써야 돼. 지금 범석이 호수의 물 다 빼고 청소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받으면 하다가 중단한다.” 하셨습니다.

만일 성령님이 이런 식으로 상황을 틀고 막지 않으셨다면, 올해 〈월명 호수〉를 ‘수영장’으로 사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후에 알고 보니, 장마철에도 비가 많이 안 와서 〈인대산 계곡〉에 물이 흘러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호수의 물을 안 빼고 청소를 못 하고 다시 물을 안 채웠으면, 올해 이 찜통더위에 몸을 식히지도 못하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후에 범석이에게 편지했더니,

“월명동은 제가 알아서 하는데, 호수에 물을 빼고 청소하는 데 무슨 2000만 원씩 들어가요? 포클레인으로 호수 안의 자갈을 뒤집고 씻는 데 기름 값과, 청소하는 자들 식비까지 5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후에 내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모두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이 이리저리 상황을 틀고 막아서 좋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산전수전을 겪은 끝에 기적으로 〈월명 파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사고’로 모두 조심해야 하는 때라서 〈월명 호수〉를 사용하지 못해서 손해였습니다. 올해도 사용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기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가슴이 찡하지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이같이 늘 기적으로 행하시어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잔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를 깨닫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진정 감사하다고 진정 사랑한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우리가 실수해도 이같이 도우시며 〈초상집〉이 될 것인데 〈잔치집〉이 되도록 기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섬리사도 모두 그렇게 해 주시니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낙심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자기가 계획한 일, 자기가 한 일이 자기 실수로 못 하여 기회를 놓쳤다고 당황하고, 한탄하고, 애태우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

〈삼위일체가 예비하신 다른 길, 달리 행할 길〉이 있다.

고로 꼭 할 일을 못 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회를 놓쳤다고 그 일에 목 매지 말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 빨리 〈다른 길〉을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주와 함께 〈그 길〉로 행하면서 기쁨으로 잔치해라. (했습니다.)

◎ 말씀 마쳤습니다.